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이제는 정당한 방법을 총동원할 때

복하 우리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조급이리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평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단조는 정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특히 물상식한 직태를 부려대면 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갑질은 그렇다. 자기가 분란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족속도 있다. 심지어는 방어나 해명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과변논리를 펴대는 작자도 있다. 그것도 공식석상에서까지. 적반장도 유분수다.

그것도 중량감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공격하는 맛이라도 있

다. 그런데 피리만도 못한 작자들이 그리하면 참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상대하자니 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냥 놔두자니 계속 못된 짓거리들을 해댈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부류들은 자신의 잘못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진짜 일어났던 일로 착각하기까지 한다. 부정적인 직태들이 일상화 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부류들은 비굴하고도 어벙하다. 자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키득거리면서. 이런 광기를 볼 때 보통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까지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래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의 광란은 커져가지 않을까. 이러니 우리 사회가 나날이 예측불가능의 높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유투브 등을 통해 1인 방송하는 국히 일부의 행위를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평범한 사무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끔찍하지 않은가.

이미 인간이길 거부한 사람들 같다. 그들은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 가족도 같은 의식을 갖고 있을까. 참으로 모를 일이다. 또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들 중의 상당수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제도권 내의 종교를.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등. 그들이 믿는 종교는 모두 사랑을 설파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도 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어라.'고 한다. 중생을 제도하라고 한다. 이런 좋은 교리 하에서는 세상에 난무하는 악독한 행태들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나날이 악해져가는 것은 왜일까. 이들 중 상당수는 사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복심양도 있다. 악랄하고 비열하면서도 자신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

애초부터 '이타'라는 것은 희박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이런 부류를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 모 정당의 총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다.

요즘 외쳐대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그럴끼라는 생각이 든다. 이 시대를 타류로 만드는 유흥 같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동·식물에게도 미친가지다. 불필요한 살생을 않는단 말이다. 참으로 서글프지 않은가. 때문에 갑질 또는 을질 하는자, 사이코패스 같은 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 동·식물에게 불필한 해를 끼치는 자 등이 있으면 이제는 정당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많은 암민들을 위해서.

社說

교권 다시 생각하는 5월돼야

최근 교권 침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전체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2018년 교육활동(교권) 침해 총 건수는 4009건에서 2454건으로 38.7% 감소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받은 교권 침해는 같은 기간 25건에서 122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권 침해 건수는 초등학교에 비해 양적으로 10배 이상 많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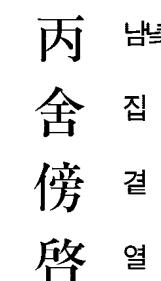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늘며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를 빌미로 수업 내용이나 교육 방침 등에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당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丙 命 丙 舍 傍 啓

丙 命
舍 傍
集 隅
結 隅
方 隅
方 隅
角 隅

▷吳: 병사(丙舍) 곁에 통로(通路)를 열어 궁전(宮殿) 내(内)를 출입(出入)하는 사람들의 편리(便利)를 도모(圖謀)했음.

本 事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리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 표 전 화 (062) 224-5800
편 집 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 고 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리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 이사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청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균절하자

우리 나라의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조직화되고 진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기초에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친구들이 바뀌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보이며 작은 것이 깊어지면 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눈치싸움으로 시작한 서열 정리

는 학교폭력인 상해, 폭행, 강요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과 상해보다는 페이스북이나 라인,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한 성 관련 유형의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사회 각 계층에서는 학교폭력의 균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거나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아동,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신고체계인 '안전 드림'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적극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법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피해 학생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주말고 117, 112,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요청이 필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가정·학교·경찰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 육성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규 / 담양경찰서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